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홍연란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School-age Children

Hong, Yeon Ra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Mu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fluences of child-rearing attitude and parent-school age communication on self-efficacy of 5th and 6th grad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460 5th and 6th graders in S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gender, mother's level of education, perceived atmosphere and religion.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chool record, family income, mother's level of education, father's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atmospher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with father according to father's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atmosphere. Communication with mothe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ther's level of education, mother's level of education and perceived atmosphere. The relative influence toward the children's self-efficacy shown in the order of importance was as follows; child-rearing attitude, school record, communication with mother, communication with father, father's level of education, family income. **Conclusion:** From the study, self-efficacy appears to be influenc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child-rearing attitude, school record, communication with mother, communication with father, father's level of education, and family income.

Key words: Child-rearing attitude, Communication, Self-efficacy

서론

연구의 필요성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하나로서, 인간이 최초로 접하는 교육의 장이다. 가정생활을 통하여 아동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및 기타 행동습관을 형성하고 인성발달을 이루게 된다.

출생 이후 아동은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성격, 사회적응방법, 윤리의식 등 정의적인 특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는 심리적인 장의 핵심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Han & Kim, 2006).

학령기는 관심사가 확대되고 독립심이 길러져서 여러 가지 발달을 수행하고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 사건

주요어 :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ong, Yeon Ran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419 Seongnam-ri, Muan-eup, Muan 534-701, Korea
Tel: 82-61-450-1803 Fax: 82-61-450-1810 E-mail: yrhong@chodang.ac.kr

투고일: 2009년 8월 24일 1차수정: 2009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09년 10월 12일

이나 행동에 대해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근면성 혹은 성취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행동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다.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을 아동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자기효능성에 대한 믿음 혹은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 불렀고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고 기술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동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로 Schunk (198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줄이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하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Choi와 Kim (2006) 역시 학습 상황 속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의 성취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고 Kim (2001)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력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행동의 방향뿐 아니라 사고유형 및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데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아동의 최초의 자기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며 이때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가 학령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면서 최근 들어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변인이 부모이기도 하다(Lee, 2002).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형성·발전시키게 되고(Bandura, 1986),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Moon, 1999).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Juang & Silbereisen, 2002). 따라

서 자기효능감 형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Kim, 1985) Turner와 Harries (1984)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의 정도에 따라 아동의 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발생됨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Hong (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며, 상호작용적 과정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의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지속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Yoon과 Oh (2005)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기조절효능감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Min (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의 연대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학, 심리학, 교육학의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압력과의 관련성 혹은 학업성취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한쪽과의 의사소통유형과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부모님 양쪽 모두와의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hoi & Kim, 2006; Chu & Park, 2006; Jang & Yang, 2005).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수행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과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예측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S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S시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 5, 6학년 549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기재요령을 설명하여 수집하였다. 이 중 내용이 완전히 기입하지 않거나 중복기입된 89부를 제외한 46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198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의 하위영역으로는 수용-거부, 자율-통제, 과잉-비과잉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영역 당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그렇다' 1점에서 '전혀 아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 자율, 비과잉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Barnes와 Olsen (1982)이 개발하고 Kim (1990)이 변안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 PACS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각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가보고식 5점 척도로서 개방적 의사소통문항 10개와 역기능적 의사소통문항 10개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다.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1997)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과제나 상황에 대한 수행뿐 아니라 광범위한 행동에 있어서의 예측이 가능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의 영역을 각 8문항씩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5.0%로 여학생보다 많았고 학년별로는 5학년이 51.3%, 형제자매의 수는 1남 1녀의 경우가 37.1%, 학교성적은 중위권이 55.6%, 가족의 수입은 200-399만 원이 81.5%, 아버지의 나이는 45-49세가 53.5%, 어머니의 나이는 40세 이하가 63.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고졸이 49.8%, 어머니의 학력수준도 고졸이 63.5%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60)

		n	%
Gender	Boy	253	55.0
	Girl	207	45.0
Grade	5th	236	51.3
	6th	224	48.7
Siblings	The only child	34	7.4
	1 brother and 1 sister	171	37.1
	2 brothers	90	19.6
	2 sisters	46	10.0
	>3 members	119	25.9
School record	High record	78	17.0
	Middle record	256	55.6
	Low record	126	27.4
Family income	200-399	375	81.5
	>400	23	5.0
	Below 200	62	13.5
Father's age	<40	139	30.2
	41-45	246	53.5
	46-50	65	14.1
	>51	10	2.2
Mother's age	<40	291	63.3
	41-45	143	31.1
	46-50	23	5.0
	>51	3	0.6
Fath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7	3.7
	Middle school	39	8.5
	High school	229	49.8
	Over university	175	38.0
Moth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4	5.2
	Middle school	37	8.0
	High school	292	63.5
	Over university	107	23.3
Perceived atmosphere	Harmonious	264	57.4
	Ordinary	173	37.6
	Not harmonious	23	5.0
Religion	Yes	42.17	42.2
	No	57.83	57.8

아동이 인지하는 가족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57.4%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7.8%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대상자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평균 93.48점이었고,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율성 33.68점, 성취압력 31.07점, 수용성 28.74점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95.25점이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자신감 32.62점, 자기조절 31.68점, 과제난이도선호 30.9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평균 65.71점이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평균 69.27이었다(Table 2).

Table 2. Child-rearing Attitude, Self Efficacy,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Variables	Mean	SD	Min	Max
Child-rearing attitude	93.48	14.71	48.00	127.00
Acceptance	28.74	5.91	14.00	44.00
Autonomy	33.68	6.43	17.00	44.00
Achievement pressure	31.07	5.98	12.00	42.00
Self efficacy	95.25	15.60	52.00	152.00
Self confidence	32.62	5.09	18.00	50.00
Self control	31.68	6.05	16.00	52.00
Task difficulty	30.96	6.71	11.00	52.00
Communication with father	65.71	13.83	24.00	100.00
Communication with mother	69.27	13.75	28.00	105.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가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 어머니의 학력 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96.57점으로 남학생의 90.95점보다 높았으며($t=-4.14, p<.001$), 어머니의 학력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가 94.97점, 대졸 이상인 경우가 92.43점으로서 초등학교졸 83.95점보다 높았다($F=5.07, p=.001$).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96.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F=10.51, p=.001$), 종교는 있는 경우가 96.23점으로 없는 경우 91.46점보다 높았다($t=3.48, p=.003$). 그러나 형제의 수,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학력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 68.22점과 고졸인 경우 65.24점에서 초등학교졸 52.7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7.93, p=.001$),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68.91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0.10, p=.001$). 성별, 형제의 수,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71.14점으로 초등학교졸 60.2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4.61, p=.001$), 어머니의 학력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이 70.58점으로 초등학교졸 60.5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63, p=.005$).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72.56점으로

Table 3. Child-rearing Attitude, Self Efficacy, Communication with Mother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hild-rearing attitude	t or F (p)	Self efficacy	t or F (p)	Communication with father	t or F (p)	Communication with mother	t or F (p)
Gender								
Boy	90.95 ± 15.05	-4.14	95.46 ± 17.99	0.31	65.26 ± 15.22	-0.76	68.41 ± 12.87	-1.45
Girl	96.57 ± 16.93	(.001)	95.01 ± 16.15	(.756)	66.25 ± 15.23	(.443)	70.33 ± 17.52	(.142)
Siblings								
The only child	91.79 ± 12.67	1.03	95.73 ± 12.72	0.27	65.97 ± 8.74	0.19	69.78 ± 10.66	0.74
1 brother and 1 sister	93.66 ± 14.18	(.388)	96.02 ± 14.28	(.879)	65.60 ± 15.22	(.942)	69.56 ± 14.56	(.563)
2 brothers	93.51 ± 13.03		95.04 ± 16.98		65.97 ± 11.75		69.25 ± 11.02	
2 sisters	97.13 ± 15.49		95.32 ± 16.75		64.17 ± 13.32		71.67 ± 16.32	
>3 members	92.25 ± 16.71		94.12 ± 16.75		66.17 ± 14.68		67.77 ± 14.01	
School record								
High record	93.65 ± 15.94	0.08	106.07 ± 14.54	40.18	68.64 ± 15.93	2.23	70.97 ± 15.73	2.57
Middle record	93.64 ± 14.79	(.928)	95.75 ± 14.72	(.001)	65.34 ± 14.08	(.106)	69.87 ± 13.44	(.074)
Low record	93.03 ± 13.82		87.53 ± 13.70	c<b<a	64.63 ± 11.60		67.00 ± 12.83	
Family income								
>400	95.39 ± 13.80	0.83	107.95 ± 16.84	16.09	70.34 ± 14.46	2.13	73.60 ± 9.76	1.94
200-399	93.69 ± 14.94	(.463)	95.72 ± 14.64	(.001)	65.83 ± 13.79	(.107)	69.36 ± 14.06	(.164)
Below 200	91.43 ± 13.57		87.67 ± 17.13	c<b<a	63.24 ± 13.50		67.08 ± 12.72	
Father's age								
<40	94.82 ± 15.71	1.39	96.05 ± 14.47	1.40	65.95 ± 14.06	0.18	69.39 ± 15.18	0.64
41-45	93.34 ± 14.49	(.242)	94.31 ± 16.63	(.248)	65.84 ± 14.29	(.924)	69.27 ± 13.02	(.587)
46-50	90.60 ± 13.29		95.81 ± 14.30		65.03 ± 11.55		68.23 ± 13.57	
>51	96.70 ± 13.18		103.60 ± 10.15		63.30 ± 14.12		74.70 ± 11.71	
Mother's age								
<40	93.27 ± 15.48	0.46	95.40 ± 14.74	0.08	65.29 ± 14.21	0.92	68.77 ± 14.14	1.01
41-45	94.35 ± 12.82	(.710)	94.92 ± 17.90	(.968)	66.97 ± 13.29	(.425)	70.38 ± 12.99	(.383)
46-50	91.00 ± 15.49		94.86 ± 10.86		62.60 ± 12.20		67.43 ± 12.87	
>51	90.00 ± 19.97		98.66 ± 16.16		69.00 ± 12.87		78.33 ± 16.62	
Fath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5.17 ± 18.70	2.29	86.70 ± 9.64	7.66	52.76 ± 13.56	7.93	60.29 ± 14.81	4.61
Middle school	92.64 ± 12.93	(.076)	90.00 ± 13.89	(.001)	62.74 ± 10.88	(.001)	65.43 ± 9.61	(.001)
High school	93.29 ± 14.25		93.84 ± 16.49	a,b,c<d	65.24 ± 14.21	a<c,d	69.17 ± 13.86	a<d
Over university	94.70 ± 15.07		99.09 ± 14.29		68.22 ± 13.11		71.14 ± 13.84	
Mother's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83.95 ± 15.07	5.07	89.33 ± 11.60	6.54	58.41 ± 15.74	2.60	60.54 ± 14.32	3.63
Middle school	90.83 ± 11.43	(.001)	95.08 ± 12.92	(.001)	65.45 ± 11.01	(.057)	69.29 ± 9.33	(.005)
High school	94.97 ± 14.61	a<c	93.77 ± 15.68	a,c<d	65.84 ± 13.89		69.52 ± 13.84	a<c<d
Over university	92.43 ± 15.04		100.66 ± 1.79		67.05 ± 13.74		70.58 ± 14.11	
Perceived atmosphere								
Harmonious	96.00 ± 15.41	10.51	98.12 ± 15.03	10.97	68.91 ± 13.77	20.10	72.56 ± 13.79	21.80
Ordinary	90.59 ± 13.16	(.001)	91.44 ± 15.49	(.003)	62.08 ± 12.60	(.001)	65.63 ± 11.87	(.007)
Not harmonious	86.13 ± 14.76	b,c<a	90.91 ± 16.37	b<a	56.13 ± 12.54	b,c<a	59.04 ± 14.93	c<b,c
Religion								
Yes	96.23 ± 13.87	3.48	95.39 ± 16.47	0.17	70.51 ± 13.74	1.65	66.08 ± 14.71	0.50
No	91.46 ± 14.99	(.003)	95.14 ± 14.97	(.864)	68.37 ± 13.70	(.092)	65.43 ± 13.16	(.614)

보통인 경우의 65.63점과 화목하지 못한 경우의 59.0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1.80$, $p=.007$). 그러나 성별, 형제의 수,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의 경우는 상위권 106.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F=40.18$, $p<.001$), 가족의 수입에서는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107.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F=16.09$, $p<.001$), 아버지의 학력수준에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99.09점으로 고졸 93.84점, 중졸 90.00점, 초등학교졸 86.70점보다 높았고($F=7.66$, $p=.001$), 어머니의 학력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 Efficacy of Children

Variables	β	R ² change	R ²	F	p
Child-rearing attitude	.23	.19	.19	1.91	.001
School record	-.12	.09	.28	-6.76	<.001
Communication with mother	.10	.08	.36	3.51	.003
Communication with father	.09	.06	.42	1.69	.010
Father's level of education	.07	.05	.47	1.91	.003
Family income	-.05	.04	.51	-2.91	.001

수준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100.66점으로 고졸의 93.77점, 초등학교졸 89.33점보다 높았다($F=6.54, p=.003$).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경우가 보통인 경우와 화목하지 못한 경우보다 높았으며($F=10.97, p=.003$) 성별, 형제의 수,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측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일반적 특성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들의 학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성적,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학력, 가족의 수입이 자기효능감의 51%를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태도($\beta=-.23$)이었으며, 그 다음이 학교성적($\beta=-.1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eta=.10$),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eta=.09$), 아버지의 학력($\beta=.07$), 가족의 수입($\beta=-.05$)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학령기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발휘할 미래의 역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살펴보고 성별, 형제의 수,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서, 이러한 변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아동의 발달과업 성취 및 성장하여 발휘하게 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최저 48점에서 최대 127점의 범위에서 평균 93.48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 자율, 성취압력의 비과잉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자율적으로 인지한다는 Moon (1999)의 연구결과, Juang과 Silbereisen (2002)의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서 고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가 초등학교졸보다 더 수용, 자율, 성취압력의 비과잉으로 인지되었으며($F=5.07, p=.001$), 이는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협동적이고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Schaefer와 Baley (1967)의 연구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낮은 부모보다 권위적이지 않고 통제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Hurlock (197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Moon (2001)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Bae (2008)의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경우 65.71점, 69.27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Kim과 Yang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Lee, S. K., & Kim, C. K., 2002; Lee, Y. S., & Kim, J. O., 2002)의 연구와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Jang과 Kang (2005)의 연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

과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hin, 200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차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 한 가정에 자녀가 한두 명으로 줄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아선호사상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 딸 구별 없이 동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세분화된 여러 전문 직종들에서 고정된 남녀 역할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과거보다 육아시설의 증가로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여성의 자기발전 기회와 자금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성적에 따른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학습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한 Kim (2001)의 연구와 학습참여도와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Choi와 Kim (2006)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어떠한 변수가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성별, 형제자매의 수,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분위기, 종교 변수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부모의 양육태도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단독으로 1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성적 9%,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8%,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6%, 아버지의 학력수준 5%, 가족의 수입 4%의 순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있는 수용적 태도로 자율성을 부과하고 과잉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아동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가족의 수입이 많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의 특성과 기능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자기효능감에 대한 또 다른 가족의 특성과 역할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집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며 빈부 격차가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양육에 대

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들 중 부모의 학력이나 가족의 수입은 쉽게 교정하기 어려우나 청소년기부터 부모됨의 교육에 이러한 경향성을 참고하게 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고 미래 자녀의 자기효능감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이를 나타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부모됨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교육을 포함한 중재로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아동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평균은 93.48 (SD=14.71), 자기효능감 평균은 95.25 (SD=15.60)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학교성적,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학력수준,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수준, 아동이 인지하는 가정의 분위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성적,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학력, 가족의 수입이었고 이들 변수들은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51% 설명하였다. 이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단독으로 19%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성적 9%,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8%,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6%, 아버지의 학력수준 5%, 가

족의 수입 4%의 순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가 아동에게 수용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자녀의 행동과 생각, 의사표현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취하며 과잉성취압력을 가지지 않고 양육할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증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아동의 감정을 정화하고 정신건강을 도와서 자신이 계획한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을 높게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기효능감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함양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대상아동과 지역을 포함하는 반복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Bae, J. Y. (2008).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454-46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nes, H. L.,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H. Olsen, et al.,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hoi, Y. S., & Kim, Y. H. (2006). Family emo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problem-solving,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0, 105-124.
- Chu, M. A., & Park, A. C. (2006).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 271-288.
- Han, S. S., & Kim, K. M. (2006). Influencing factor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37-44.
- Hong, K. O. (2003).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gender, age,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s and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 5-21.
- Hurlock, E. B. (1973). *Transition in family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Boston, MA: McGrawHil comp.
- Jang, H. S., & Kang, T. W. (2005).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3, 104-130.
- Jang, M. K., & Yang, S. M. (2005). The effects of mother's awareness of disorder, child-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with ADHD.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1, 163-188.
- Juang, L. P., & Silbereisen, R. K. (2002).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efficacy beliefs on psychological responses to social chang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 340-359.
- Kim, A. Y. (1997). A study on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Kim, K. J. (1985).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ive parental attitudes on self-concept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 35-52.
- Kim, K. H., & Yang, K. 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s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middle-school students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 55-63.
- Kim, M. S. (2001).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sentation anxiety,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Kim, Y. H. (1990).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K. Y. (2002). Ego-identity of school-aged children: Effects of level of income and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 65-76.
- Lee, S. K., & Kim, C. K. (2002). The influence of variables related mother, daughter, & household on mother-high school girl's facilitative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14, 757-774.
- Lee, Y. S., & Kim, J. O. (2002).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 133-159.
- Min, D. I.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ysfunctional family and self-efficacy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Moon, H. J.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 141-151.
- Moon, M. Y. (2001).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ption of child-rearing rising attitude on children's behavior of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chaefer, E. S., & Baley, N. (1967).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or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1-6.
- Schunk, D. H. (1981). Modeling and attributional effects on children's achievement: A self-efficacy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93-105.
- Shin, H. J. (2005).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djustment by the school grad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Turner, P. H., & Harries, M. B. (1984). Parental attitude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44*, 105-113.

Yoon, M. A., & Oh, Y. J. (2005). Study on parent-adolescent 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4*, 115-129.